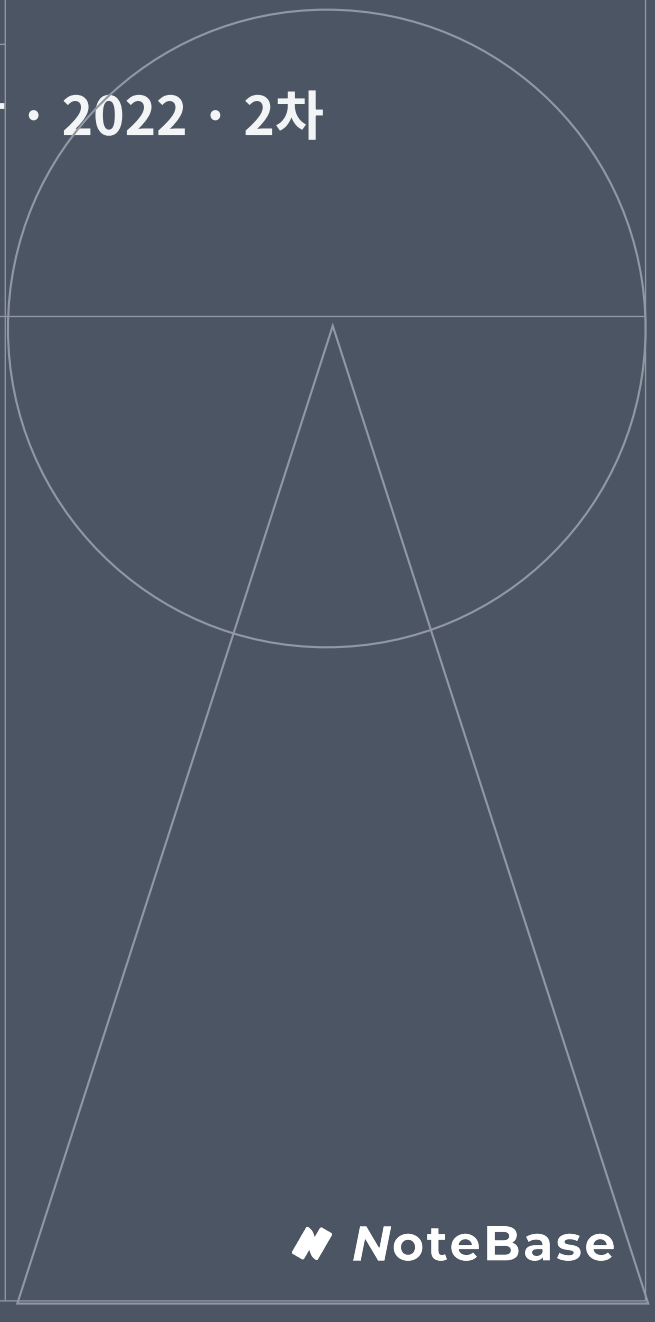
기출OX 해설집

공무원/국가직/7급 · 심리학 · 2022 · 2차



NoteBase

기출OX 해설집

공무원/국가직/7급 · 심리학 · 2022 · 2차

공무원/국가직/7급 · 심리학 · 2022 · 2차

문 1. 지각 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선택적 주의를 설명하는 사례로 칵테일파티 효과(cocktail party effect)가 있다.

② 감각정보를 의미있는 형태로 지각 처리하는 과정에는 개인의 경험과 기대가 반영된다.

③ 주변의 맥락과 단서의 영향을 받아 지각정확성이 저하될 수 있다.

④ 깊이지각에 있어서 상대적 높이는 양안단서에 해당한다.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지각 과정에서 선택적 주의, 하향처리, 맥락 효과, 깊이지각의 단안단서와 양안단서를 구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선택적 주의는 여러 자극 가운데 일부 정보에만 주의를 집중해 처리하는 과정이다.
하향처리는 감각정보를 해석할 때 개인의 경험, 기대, 지식이 개입하는 처리이다.
맥락 효과는 주변 단서와 상황이 지각 내용과 정확성에 영향을 주는 현상이다.
깊이지각 단서에서 양안단서는 두 눈의 수렴과 망막상 차이이고, 단안단서는 상대적 높이, 중첩, 선원근법 같은 단서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칵테일파티 효과는 여러 자극이 동시에 존재하는 상황에서도 자기 이름이나 중요한 자극을 선택적으로 포착하는 현상으로, 선택적 주의의 대표 사례이다.

② O
감각정보를 의미 있는 형태로 해석하는 지각 과정에는 기존 경험과 기대가 작용한다. 이는 하향처리의 설명과 맞는다.

③ O
지각은 순수한 자극 입력만으로 결정되지 않고 주변 맥락과 단서의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문맥이 부적절하거나 편향된 단서가 주어지면 지각 왜곡이 생겨 정확성이 떨어질 수 있다.

④ X
틀린 부분은 '상대적 높이는 양안단서'라는 표현이다.
상대적 높이는 한쪽 눈만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 단안단서이다. 양안단서에는 두 눈의 수렴과 망막상 차이가 해당한다.

오답 포인트

깊이지각 단서를 묻는 문제에서 수험생은 '깊이'라는 말만 보고 양안단서로 넓게 묶어 버리기 쉽다. 그러나 ④처럼 상대적 높이, 중첩, 선원근법은 단안단서이고, 수렴과 망막상 차이만 양안단서라는 구분이 핵심 함정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지각 문항은 먼저 선택적 주의, 하향처리, 맥락 효과처럼 처리 과정 개념을 구분한 뒤, 깊이지각이 나오면 '두 눈이 함께 필요하면 양안단서, 한 눈만으로 가능하면 단안단서'라는 기준으로 판단하면 된다.

암기 포인트

칵테일파티 효과는 선택적 주의, 경험과 기대는 하향처리, 상대적 높이는 단안단서이다.

NoteBase

문 2. 실험연구에서 관찰자와 참가자 모두 사전에 어느 참가자가 어떤 처치를 받았는지 모르는 것을 의미하는 개념은?

① 위약효과(placebo effect)
② 이중맹목 연구(double-blind study)
③ 실험자 편향(experimenter bias)
④ 단순맹목 연구(single-blind study)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위약효과, 이중맹목 연구, 실험자 편향, 단순맹목 연구를 구분하는 개념비교 문항이다.

핵심 개념

위약효과는 실제 약효가 없는 처치라도 참가자의 기대 때문에 반응이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중맹목 연구는 참가자와 관찰자 모두가 누가 어떤 처치를 받았는지 모르게 설계한 연구이다. 실험자 편향은 연구자의 기대가 관찰, 기록, 해석에 영향을 주는 왜곡이다. 단순맹목 연구는 한쪽만 처치 배정을 모르는 설계이며 보통 참가자만 모른다.

선지별 해설

1번 X: 위약효과는 가짜 약이나 무효 처치에도 기대 때문에 증상 변화나 반응이 나타나는 현상이다. 틀린 부분은 "관찰자와 참가자 모두 사전에 모른다"는 뜻으로 이해한 점이다. 올바르게는 "참가자의 기대가 반응에 영향을 주는 현상"이다.
2번 O: 이중맹목 연구는 참가자도 자신이 어떤 처치를 받는지 모르고, 관찰자나 평가자도 누가 어떤 집단인지 모르는 설계이다. 문제의 설명과 정확히 일치한다.
3번 X: 실험자 편향은 연구자가 특정 결과를 기대하여 관찰이나 해석을 치우치게 만드는 현상이다. 틀린 부분은 이를 맹검 설계의 명칭으로 본 점이다. 올바르게는 "연구자의 기대가 결과 측정에 개입하는 편향"이다.
4번 X: 단순맹목 연구는 한쪽만 처치 배정을 모르는 설계이다. 틀린 부분은 "관찰자와 참가자 모두"라는 부분이다. 올바르게는 "보통 참가자는 모르지만 연구자는 아는 경우가 많은 설계"이다.

오답 포인트

맹검의 범위를 묻는 문제인데, 위약효과와 실험자 편향처럼 맹검이 필요한 이유를 나타내는 개념을 맹검 설계의 이름과 혼동하면 틀린다. 또 단순맹목과 이중맹목의 차이는 "누가 모르는가" 한 줄로 갈린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선지에 사람이 몇 명 가려지는지를 먼저 본다. 참가자만 모르면 단순맹목, 참가자와 관찰자 모두 모르면 이중맹목이다. 기대로 반응이 달라지면 위약효과, 연구자 기대가 측정에 스며들면 실험자 편향이다.

암기 포인트

이중맹목은 두 집단이 아니라 두 주체가 모른다는 설계이고, 위약효과와 실험자 편향은 그 설계가 막으려는 왜곡 요인이다.

NoteBase

문 3. 다음 사례에 해당하는 강화계획은?

커피전문점에서 커피 한 잔을 살 때마다 도장을 찍어주고 도장 10개가 되면, 커피 한 잔을 무료로 제공한다.

① 변동간격
② 고정간격
③ 변동비율
④ 고정비율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강화가 시간의 경과에 따라 주어지는지, 반응 횟수에 따라 주어지는지를 사례에 적용해 구별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사례 정리

핵심 사실 1: 커피를 한 잔 살 때마다 도장을 1개씩 받는다.
핵심 사실 2: 도장이 10개가 되면 커피 1잔을 무료로 제공받는다.
판단에 중요한 조건: 강화는 시간이 아니라 구매 10회라는 고정된 반응 수를 채웠을 때 주어진다.

핵심 개념

고정비율 강화계획은 일정한 반응 횟수마다 강화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적용 요건: 강화의 기준이 시간 간격이 아니라 반응 수여야 하고, 그 반응 수가 미리 정해져 있어야 한다.

적용 기준

이 사례에서는 무료 커피가 커피를 산 횟수 10회마다 주어지므로 판단 기준은 시간 간격이 아니라 반응 횟수이다. 또한 필요한 반응 수가 10회로 정해져 있으므로 변동이 아니라 고정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1번 X: 변동간격 강화계획은 일정하지 않은 시간 간격이 지난 뒤 첫 반응에 강화를 주는 방식이다. 이 사례의 틀린 표현은 '간격'과 '변동'이다. 올바르게는 시간이 아니라 구매 횟수 10회가 기준이고, 그 수가 정해져 있으므로 고정비율 강화계획이다.
2번 X: 고정간격 강화계획은 정해진 시간이 지난 뒤 첫 반응에 강화를 주는 방식이다. 이 사례의 틀린 표현은 '간격'이다. 올바르게는 일정 시간이 지난 뒤 보상을 주는 것이 아니라 커피를 10번 산 뒤 보상을 주므로 비율 강화계획이다.
3번 X: 변동비율 강화계획은 강화가 예측할 수 없게 달라지는 반응 횟수 뒤에 제공되는 방식이다. 이 사례의 틀린 표현은 '변동'이다. 올바르게는 무료 커피가 도장 10개마다 주어지므로 반응 횟수가 달라지지 않는 고정비율 강화계획이다.
4번 O: 고정비율 강화계획은 일정한 반응 횟수마다 강화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이 사례는 커피를 살 때마다 반응이 1회씩 누적되고, 정확히 10회마다 무료 커피라는 강화가 주어지므로 이에 해당한다.

오답 포인트

도장을 매번 찍어 준다는 표면 단서만 보고 강화가 매 구매마다 주어진다고 오해하거나, 커피를 사는 행위가 반복되므로 시간 간격과 혼동하면 틀리기 쉽다. 이 문항의 핵심은 실제 강화가 도장 10개가 모였을 때 제공된다는 점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강화계획 사례는 먼저 보상이 무엇인지 찾고, 그 보상이 시간 경과 뒤 주어지는지 반응 횟수 뒤 주어지는지 구분한다. 그다음 기준이 일정하면 고정, 들쭉날쭉하면 변동으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시간 뒤 보상은 간격, 횟수 뒤 보상은 비율, 정해진 횟수마다 보상이면 고정비율이다.

NoteBase

문 4. 정신분석학에서 주장하는 자아방어기제(ego defense mechanism)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자아방어기제는 이를 사용하는 당사자에게는 유용하기는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자기기만이다.
ㄴ. 시어머니에게 적개심이 있는 며느리가 정작 시어머니를 직접 만나면 매우 호의적으로 대하는 것은 투사 기제가 작동한 것이다.
ㄷ. 불안을 느끼는 사람은 불안을 제거하기 위해 자아방어기제를 두 개 이상 사용하지는 않는다.
ㄹ. 고통스럽거나 위험한 생각이 의식선상으로 나오는 것을 무의식적으로 방어하는 것은 억압 기제가 작동한 것이다.

① ㄱ, ㄷ
② ㄱ, ㄹ
③ ㄱ, ㄴ, ㄹ
④ ㄴ, ㄷ, ㄹ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자아방어기제의 공통 성격과 투사, 반동형성, 억압의 구분을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자아방어기제는 불안과 내적 갈등을 줄이기 위해 자아가 무의식적으로 사용하는 심리적 왜곡이다.
투사는 자신의 받아들이기 어려운 감정이나 충동을 타인에게 돌려 지각하는 기제이다.
반동형성은 용납하기 어려운 충동과 정반대의 태도나 행동을 과장되게 보이는 기제이다.
억압은 고통스럽거나 위협적인 생각이 의식으로 올라오지 못하게 무의식 속에 밀어 넣는 기제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ㄱ은 자아방어기제가 당사자에게는 불안을 줄여 주지만 현실 왜곡과 자기기만의 성격을 가진다는 점에서 옳다. 그러나 ㄷ의 틀린 부분은 "자아방어기제를 두 개 이상 사용하지는 않는다"이다. 올바르게는 상황에 따라 여러 방어기제가 함께 작동할 수 있다.

② O
ㄱ은 방어기제의 적응적 기능과 자기기만적 성격을 함께 짚은 설명이므로 옳다. ㄹ도 고통스럽거나 위협적인 생각이 의식에 떠오르는 것을 무의식적으로 막는 억압의 설명이므로 옳다. 따라서 옳은 것만 묶은 선택지는 ②이다.

③ X
ㄱ과 ㄹ은 옳지만 ㄴ이 틀리므로 ③은 오답이다. ㄴ의 틀린 부분은 "투사 기제가 작동"이다. 시어머니에게 적개심이 있으면서 정반대로 매우 호의적으로 대하는 것은 투사가 아니라 반동형성이다.

④ X
ㄹ은 옳지만 ㄴ과 ㄷ이 틀리므로 ④는 오답이다. ㄴ은 "투사"를 "반동형성"으로 고쳐야 하고, ㄷ은 "두 개 이상 사용하지는 않는다"를 "둘 이상의 방어기제가 함께 나타날 수 있다"로 고쳐야 한다.

오답 포인트

투사와 반동형성을 헷갈리기 쉽다는 점이 핵심 함정이다. 자기 감정을 남에게 돌리면 투사이고, 자기 감정과 정반대로 행동하면 반동형성이다. 또 방어기제는 하나만 고정적으로 쓰인다고 생각하면 ㄷ에 걸리기 쉽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방어기제 문제는 먼저 불안을 다루는 방식이 무엇인지 본다. 내 감정을 남의 것으로 돌리면 투사이고, 정반대 태도를 보이면 반동형성이며, 의식화 자체를 막으면 억압이다. 이후 각 진술이 방어기제의 일반 성질까지 맞게 설명하는지 확인하면 된다.

암기 포인트

투사는 남에게 돌림, 반동형성은 반대로 행동, 억압은 의식 밖으로 밀어냄이다.

NoteBase

문 5. 기본 귀인 오류(fundamental attribution error)를 나타내는 사례는?

① 영수가 보기에 철희가 이번 시험을 망친 이유는 시험 문제가 너무 지엽적인 데서 출제되었기 때문이다.

② 영수가 보기에 철수의 점수가 낮은 이유는 시험 보는 동안 철수가 문제에 제대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③ 영수가 보기에 철영이 고득점에 실패한 이유는 이번 시험이 어렵게 출제되었기 때문이다.

④ 영수가 보기에 철원의 과제 수행 점수가 낮은 이유는 철원 이외의 다른 사람들이 정당하지 않은 방식으로 과제를 수행하였기 때문이다.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타인의 수행 결과를 설명할 때 상황 요인보다 개인의 내적 특성을 과도하게 강조하는 기본 귀인 오류를 사례에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사례 정리

핵심 사실 1: 보기들은 모두 다른 사람의 낮은 점수나 실패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핵심 사실 2: 기본 귀인 오류는 타인의 결과를 설명할 때 외부 상황보다 그 사람의 성격, 능력, 태도 같은 내적 원인을 더 크게 보는 편향이다.
판단에 중요한 조건: 원인 설명이 시험 난이도, 타인의 행동 같은 외부 요인인지, 아니면 당사자의 주의 부족, 능력 부족 같은 내부 요인인지 구분하는 점이 핵심이다.

핵심 개념

기본 귀인 오류 = 타인의 행동이나 결과를 해석할 때 상황의 영향을 과소평가하고 성격, 태도, 능력 같은 내적 특성을 과대평가하는 귀인 편향이다.
적용 요건: 설명 대상이 타인의 결과여야 하고, 그 원인을 외부 상황이 아니라 그 사람 내부의 특성이나 태도로 돌리고 있어야 한다.

적용 기준

이 사례에서는 원인 귀인이 어디로 향하는지를 보면 된다. 핵심은 실패 원인을 시험의 어려움, 다른 사람의 행동 같은 상황 요인으로 보는지, 아니면 당사자의 부주의나 능력 부족 같은 내적 요인으로 보는지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철희가 시험을 망친 이유를 "시험 문제가 너무 지엽적"이라고 본 것은 시험 자체라는 상황 요인에 귀인한 것이다. 기본 귀인 오류는 타인의 실패를 그 사람의 능력 부족이나 성실성 부족 같은 내적 특성 탓으로 보는 경우이다. 틀린 표현은 "시험 문제가 너무 지엽적"이다. 올바르게는 "철희가 준비가 부족했기 때문이다"처럼 개인 내부 원인으로 보아야 한다.
② O. 철수의 점수가 낮은 이유를 "문제에 제대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본 것은 철수 개인의 주의 부족이라는 내적 요인에 귀인한 것이다. 타인의 수행 결과를 상황보다 개인 내부 특성이나 태도로 설명하므로 기본 귀인 오류에 해당한다.
③ X. 철영의 고득점 실패 이유를 "이번 시험이 어렵게 출제되었기 때문"이라고 본 것은 시험 난이도라는 외적 상황 요인에 귀인한 것이다. 틀린 표현은 "시험이 어렵게 출제되었기 때문"이다. 올바르게는 "철영의 실력이나 준비 부족 때문"처럼 내적 원인으로 설명하는 경우가 기본 귀인 오류이다.
④ X. 철원의 과제 수행 점수가 낮은 이유를 "다른 사람들이 정당하지 않은 방식으로 과제를 수행하였기 때문"이라고 본 것은 타인의 행동이라는 외부 상황 요인에 귀인한 것이다. 틀린 표현은 "다른 사람들이 정당하지 않은 방식으로 과제를 수행하였기 때문"이다. 올바르게는 "철원이 과제를 수행하는 능력이나 태도가 부족했기 때문"처럼 당사자의 내적 특성으로 설명해야 기본 귀인 오류가 된다.

오답 포인트

①, ③, ④는 모두 다른 사람의 결과를 설명하고 있어 겉으로는 비슷해 보이지만, 실제 원인 설명은 시험 난이도나 다른 사람의 행동 같은 외부 상황에 놓여 있다. 이 문제를 틀렸다면 "타인에 대한 판단"이라는 단서만 보고 골랐을 가능성이 높고, 원인이 내적인지 외적인지까지 끝까지 나누지 못한 경우가 많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사례형 귀인 문제는 먼저 설명 대상이 자신인지 타인인지 구분하고, 다음으로 원인이 성격·능력·주의 부족 같은 내적 요인인지 시험 난이도·환경·타인의 행동 같은 외적 요인인지 나누어 판단하면 된다. 타인의 결과를 내적 특성 탓으로 몰아가면 기본 귀인 오류로 본다.

암기 포인트

타인의 실패를 상황보다 성격과 태도 탓으로 돌리면 기본 귀인 오류이다.

NoteBase

문 6. 다음 인지오류를 설명하는 개념은?

2001년 9·11 테러 공격 이후 많은 사람들은 비행기 사고에 대한 두려움으로, 실제로는 자동차 사고 발생률이 더 높음에도 불구하고 비행기 여행보다 자동차 여행을 선택하였다.

① 가용성 어림법(availability heuristic)
② 확증편향(confirmation bias)
③ 착각성 상관(illusionary correlation)
④ 사후가정 사고(counterfactual thinking)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충격적이고 생생한 사건이 쉽게 떠오를 때 위험의 크기나 발생 가능성을 어떻게 잘못 판단하는지를 사례에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사례 정리

2001년 9.11 테러 이후 많은 사람들이 비행기 사고를 더 두려워했다.
실제 사고 발생률은 자동차가 더 높았는데도 비행기보다 자동차 여행을 선택했다.
판단에 중요한 조건은 최근의 충격적 사건이 기억 속에서 매우 쉽게 회상되었다는 점이다.

핵심 개념

가용성 어림법은 어떤 사건의 빈도나 확률을 실제 통계보다 기억에서 얼마나 쉽게 떠오르는지에 따라 판단하는 경향이다.
적용 요건은 최근성, 생생함, 정서적 충격처럼 특정 사례가 기억 접근성을 높여 판단을 왜곡하는 상황이다.

적용 기준

이 사례에서는 실제 위험도보다 기억의 접근성이 판단을 좌우했는지를 본다.
핵심은 비행기 사고가 객관적으로 더 위험해서가 아니라 9.11 테러 장면이 강하게 각인되어 비행기 위험이 더 크게 느껴졌다는 점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1번 O: 가용성 어림법에 해당한다. 사람들은 쉽게 떠오르는 사례를 근거로 사건의 가능성을 크게 본다. 9.11 테러라는 생생한 사건이 반복적으로 회상되어 비행기 위험을 실제보다 높게 평가했다.
2번 X: 확증편향은 자신이 이미 믿고 있는 생각을 지지하는 정보만 선택적으로 받아들이거나 해석하는 경향이다. 이 사례의 핵심은 기존 신념을 확인한 것이 아니라 쉽게 떠오르는 사건 때문에 위험도를 과대평가한 점이다. 틀린 표현은 '확증'이고, 올바르게는 '가용성에 따른 확률 판단 왜곡'이다.
3번 X: 착각성 상관은 실제로 관계가 약하거나 없는 두 사건 사이에 상관이 있다고 믿는 오류이다. 이 사례는 비행기와 테러 사이의 허위 상관을 만든 것이 아니라 비행기 사고의 발생 가능성을 기억의 생생함 때문에 높게 본 것이다. 틀린 표현은 '상관'이고, 올바르게는 '기억의 용이성에 따른 위험 추정'이다.
4번 X: 사후가정 사고는 일이 벌어진 뒤 '그때 다르게 했더라면'과 같이 대안적 결과를 상상하는 사고이다. 이 사례는 사건 후 다른 선택을 상상하는 내용이 아니라 현재의 위험 판단이 왜곡된 경우이다. 틀린 표현은 '대안적 결과 상상'이고, 올바르게는 '회상 용이성에 끌린 위험 판단'이다.

오답 포인트

테러 이후 자동차를 선택했다는 행동만 보고 단순한 불안 반응으로 읽으면 개념을 놓치기 쉽다. 이 문제의 핵심은 실제 확률보다 기억에 잘 남는 사건이 판단을 지배했다는 점이다. 확증편향은 정보 선택의 문제이고, 착각성 상관은 잘못된 관계 지각의 문제이며, 사후가정 사고는 사건 후 대안 상상의 문제라는 점을 구분해야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사례형에서 어떤 사건이 실제보다 더 자주, 더 위험하게 느껴진 이유가 최근성·생생함·충격성 때문이면 가용성 어림법을 먼저 본다. 반대로 기존 신념을 지키려는 정보 선택이면 확증편향, 없는 관계를 본다면 착각성 상관, 이미 지난 일을 바꿔 상상하면 사후가정 사고이다.

암기 포인트

잘 떠오르면 자주 일어나는 것처럼 느끼는 오류가 가용성 어림법이다.

NoteBase

문 7. 다음 사례를 설명하는 이론은?

대학생들을 모집 후, 이들에게 각성수준을 높일 수 있는 에피네프린을 주사하는 것에 대한 동의를 얻었다. 에피네프린 주사 후 참가자들은 대기실로 이동하였다. 이동한 대기실에는 다른 사람(실험공모자)이 있었고, 이 사람은 참가자들에게 성가신 행위를 하거나 다소 웃기는 행동을 하였다. 참가자들은 이 사람을 관찰하는 동안에 호흡이 빨라지고 심박이 상승하는 느낌을 받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참가자들은 거의 아무런 정서도 느끼지 않았다. 호흡 및 심박 상승과 같은 각성의 증가를 에피네프린의 효과로 생각했기 때문이다.

① 제임스-랑게(James-Lange) 이론

② 캐논-바드(Cannon-Bard) 이론

③ 샤흐터(Schachter)와 싱어(Singer)의 2요인 이론

④ 자이언스(Zajonc)의 단순노출효과 이론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생리적 각성과 그 원인에 대한 인지적 해석이 결합될 때 정서가 형성된다는 샤흐터와 싱어의 2요인 이론을 사례에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핵심 정리

제임스-랑게 이론: 정서는 신체 변화와 각성을 지각한 결과로 나타난다.
캐논-바드 이론: 자극에 대한 정서 경험과 신체 반응이 동시에 일어난다.
샤흐터와 싱어의 2요인 이론: 정서는 생리적 각성과 그 각성에 대한 인지적 해석이 함께 있을 때 형성된다.
자이언스의 단순노출효과 이론: 어떤 대상에 반복적으로 노출될수록 친숙감과 호감이 증가한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제임스-랑게 이론은 신체 각성 자체를 지각한 결과로 정서가 생긴다고 본다. 그러나 사례의 핵심은 참가자들이 심박과 호흡 증가를 느끼고도 그것을 에피네프린의 효과로 해석하여 거의 정서를 느끼지 않았다는 점이다. 틀린 연결은 '이 사례가 신체반응만으로 정서가 결정된다는 설명'이다. 올바르게는 각성의 인지적 귀인이 정서 경험을 좌우하는 2요인 이론이다.
② X. 캐논-바드 이론은 자극이 주어지면 정서 경험과 생리적 각성이 동시에 발생한다고 본다. 이 사례는 동시발생 자체보다 같은 각성도 원인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정서가 달라진다는 점이 핵심이다. 틀린 연결은 '동시적 정서 발생이 사례의 핵심이라는 설명'이다. 올바르게는 각성의 해석 과정이 포함되는 2요인 이론으로 보아야 한다.
③ O. 샤흐터와 싱어의 2요인 이론은 생리적 각성과 그에 대한 인지적 명명이 함께 있어야 특정 정서가 형성된다고 본다. 참가자들은 실제로 각성은 느꼈지만 그 원인을 주사 효과로 귀인했기 때문에 실험공모자의 행동을 보고도 강한 정서를 형성하지 않았다. 사례는 바로 이 귀인 과정을 설명한다.
④ X. 자이언스의 단순노출효과는 어떤 대상을 반복해서 접할수록 더 호감 있게 느끼는 현상을 설명한다. 이 사례에는 반복 노출에 따른 친숙감이나 선호 증가가 없다. 틀린 연결은 '각성의 원인 해석 사례를 단순노출효과로 보는 설명'이다. 올바르게는 생리적 각성과 인지적 해석의 결합을 설명하는 2요인 이론이다.

오답 포인트

심박과 호흡 증가라는 신체 각성 단서만 보고 ① 제임스-랑게 이론으로 곧바로 가면 오답이 된다. 이 문항의 결정 단서는 참가자들이 그 각성을 '에피네프린 효과'로 해석하여 정서를 거의 느끼지 않았다는 부분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사례에 신체 각성이 제시된 뒤 그 원인을 상황이나 약물, 주변 단서로 해석하는 과정이 나오면 2요인 이론을 먼저 떠올릴 수 있다. 반대로 각성의 원인 해석 없이 신체반응 자체가 곧 정서라는 설명이면 제임스-랑게 이론에 가깝다.

암기 포인트

샤흐터-싱어 = 각성 + 해석 = 정서이다.

NoteBase

문 8. 지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카텔(Cattell)의 결정성 지능(crystallized intelligence)은 유전에 기인하는 지능으로, 성인기 이후에는 감퇴한다.

② 플린(Flynn) 효과는 세대가 지나면서 지능검사의 평균이 높아지는 현상을 의미한다.

③ 편차지능지수는 개인의 상대적 위치를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

④ 스피어만(Spearman)에 의하면, 모든 지적 수행의 기저에는 일반적인 정신능력인 g요인이 있다.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카텔의 유동성 지능과 결정성 지능의 차이, 플린 효과, 편차지능지수, 스피어만의 g요인을 구별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핵심 개념

유동성 지능은 새로운 문제를 빠르게 추론하고 해결하는 능력으로, 생물학적 기초와 유전의 영향이 크며 성인기 이후 감소하는 경향이 있다.
결정성 지능은 교육과 경험을 통해 축적된 지식과 언어적 이해 능력으로, 연령이 들수록 유지되거나 증가할 수 있다.
플린 효과는 세대가 지날수록 지능검사 평균점수가 상승하는 현상이다.
편차지능지수는 평균과 표준편차를 기준으로 개인의 상대적 위치를 보여 주는 지표이다.
스피어만의 g요인은 여러 지적 과제에 공통으로 작용하는 일반지능 요인이다.

선지별 해설

1번: X. 틀린 부분은 "결정성 지능은 유전에 기인하는 지능으로, 성인기 이후에는 감퇴한다"는 표현이다. 유전과 생물학적 성숙의 영향을 크게 받고 성인기 이후 감소하기 쉬운 것은 유동성 지능이다. 결정성 지능은 학습과 경험으로 축적되며 비교적 유지되거나 증가할 수 있다.
2번: O. 플린 효과는 세대가 바뀌면서 지능검사 평균점수가 전반적으로 높아지는 현상을 뜻하므로 설명이 맞다.
3번: O. 편차지능지수는 평균으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를 표준편차 단위로 반영하므로 개인의 상대적 위치를 파악하는 데 유리하다.
4번: O. 스피어만은 서로 다른 지적 과제들 사이의 공통성을 설명하기 위해 일반적 정신능력인 g요인을 제시하였다.

오답 포인트

카텔의 두 지능을 서로 뒤바꾸면 틀리기 쉽다. "유전, 추론, 새로운 문제 해결, 연령 증가 후 감소"는 유동성 지능의 단서이고, "경험, 교육, 언어, 축적된 지식"은 결정성 지능의 단서이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지능 이론 문제에서는 먼저 선지의 핵심 단어가 생물학적 처리속도와 새 문제 해결인지, 아니면 학습된 지식과 경험인지부터 구분한다. 그다음 세대 간 평균 상승은 플린 효과, 공통 일반능력은 g요인, 상대적 위치 평가는 편차지능지수로 연결하면 된다.

암기 포인트

유동성 지능은 타고난 추론력, 결정성 지능은 쌓인 지식이다.

NoteBase

문 9. 다음과 같은 의사결정을 하는 집단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1986년 1월 28일 우주왕복선 챌린저호는 추진로켓 엔진에서의 문제로, 발사 후 1분 13초 만에 폭발하여 승무원 전원이 사망했다. 그런데 사고가 예측할 수 없이 발생한 것은 아니다. 발사 불과 몇 시간 전에 추진로켓을 제조한 회사는 날씨가 너무 추워서 O형 모양의 고리가 작동하지 않을 수 있으니 발사를 연기하라고 우주항공국(NASA)의 의사결정 팀에 긴급 경고를 보냈었다. 그러나 NASA는 그러한 경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① 리더가 지시적 리더십을 발휘한다.

② 집단의 응집성이 낮다.

③ 만장일치에 대한 압력이 강하다.

④ 집단적 합리화가 일어난다.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챌린저호 사례를 집단사고의 특징에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사례 정리

핵심 사실 1: 발사 전 기술진이 추운 날씨로 O형 고리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경고하였다.
핵심 사실 2: NASA 의사결정팀은 그 경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발사를 강행하였다.
판단에 중요한 조건: 반대 정보가 있었는데도 집단이 이를 압박하거나 합리화하며 같은 결론으로 밀고 나갔다는 점이다.

핵심 개념

집단사고는 응집성이 높은 집단이 합리적 검토보다 만장일치와 결속 유지를 우선하여 비판적 사고를 약화시키는 현상이다.
적용 요건으로는 높은 응집성, 지시적 리더십, 반대 의견에 대한 압력, 집단적 합리화 같은 특징이 함께 나타나기 쉽다.

적용 기준

이 사례에서는 경고 신호가 있었는지, 그 경고가 자유롭게 토론되었는지, 반대 의견이 억압되었는지, 집단이 불리한 정보를 합리화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핵심은 실패 자체가 아니라 비판적 검토보다 합의 유지가 우선되었는가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지시적 리더십은 집단사고를 촉진하는 조건이다. 리더가 특정 결론을 강하게 선호하면 구성원들이 반대 의견을 내기 어려워지고 대안 검토가 약해진다.

② X
집단사고는 응집성이 낮은 집단의 특징이 아니다. 오히려 응집성이 지나치게 높아 집단의 결속을 깨지 않으려는 압력이 커질 때 잘 나타난다. 틀린 표현은 '응집성이 낮다'이고, 올바르게는 '응집성이 높다'이다.

③ O
집단사고에서는 만장일치에 대한 압력이 강하다. 이견을 내면 집단 분위기를 해친다고 여겨 반대 의견이 위축되고, 겉으로는 모두가 같은 생각인 것처럼 보이기 쉽다.

④ O
집단적 합리화는 집단사고의 대표적 징후이다. 불리한 경고나 반대 정보를 축소하거나 정당화하면서 기존 결정을 계속 밀어붙이는 방식이 여기에 해당한다.

오답 포인트

실패한 의사결정 사례를 보면 집단이 혼란스럽고 결속이 약했다고 오해하기 쉽다. 그러나 이 문항의 함정은 실패의 결과가 아니라 의사결정 과정의 특징에 있다. 경고가 묵살되고 이견 압력이 작동했다면 응집성 부족이 아니라 과도한 응집성과 동조 압력을 먼저 본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사례형에서 집단사고를 판단할 때는 반대 정보의 존재, 이견 억압 여부, 만장일치 압력, 집단적 합리화 유무를 순서대로 본다. 이런 요소가 보이면 집단의 응집성은 낮은 쪽이 아니라 높은 쪽으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집단사고는 높은 응집성, 강한 동조 압력, 집단적 합리화로 요약된다.

NoteBase

문 10. 피아제(Piaget)의 인지 발달 단계 중 전조작기에 해당하는 시기 내에 발생하는 발달적 특성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에릭슨(Erikson)의 심리사회적(psychosocial) 발달 단계에서는 주도성 대 죄책감의 위기를 경험하고 있을 때이다.
ㄴ. 프로이드(Freud)의 심리성적(psychosexual) 발달 단계에서는 부모와의 동일시 과정을 겪고 있을 때이다.
ㄷ. 콜버그(Kohlberg)의 도덕 발달 단계에서는 사회적 규칙에 근거한 도덕성이 발달하고 있을 시기이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ㄱ, ㄴ, ㄷ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이 문항은 피아제의 전조작기와 같은 연령대에 해당하는 에릭슨, 프로이트, 콜버그의 발달 단계를 정확히 연결하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핵심 정리

피아제의 전조작기는 대체로 2~7세로 상징적 사고가 발달하지만 논리적 조작은 아직 미숙한 시기이다.
에릭슨의 주도성 대 죄책감은 유아기 후반에 해당하여 전조작기와 겹친다.
프로이트의 남근기는 대체로 3~6세로 오이디푸스 갈등과 동일시가 나타나는 시기이므로 전조작기와 겹친다.
콜버그의 사회적 규칙에 근거한 도덕성은 보통 인습수준의 도덕성으로, 전조작기 아동의 수준으로 보기 어렵다.

선지별 해설

1번 O: ㄱ, ㄴ만 고른 조합으로 옳다. ㄱ의 주도성 대 죄책감은 유아기 후반의 심리사회적 위기이므로 전조작기와 시기가 겹친다. ㄴ의 부모와의 동일시는 프로이트의 남근기에 나타나는 특징이므로 역시 전조작기와 연결된다.
2번 X: ㄱ은 맞지만 ㄷ이 틀려서 오답이다. 틀린 표현은 '사회적 규칙에 근거한 도덕성'을 전조작기에 해당한다고 본 부분이다. 올바르게는 전조작기 아동은 아직 인습수준의 도덕성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본다.
3번 X: ㄴ은 맞지만 ㄷ이 틀려서 오답이다. 틀린 표현은 '사회적 규칙에 근거한 도덕성'이다. 올바르게는 프로이트의 동일시는 남근기의 특징이지만, 사회적 규칙 중심의 도덕성은 더 이후 발달 단계에 해당한다.
4번 X: ㄱ, ㄴ은 맞지만 ㄷ까지 포함해서 오답이다. 틀린 표현은 'ㄷ도 전조작기에 해당한다'는 연결이다. 올바르게는 ㄱ과 ㄴ만 전조작기와 대응하고 ㄷ은 해당하지 않는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피아제의 인지발달 단계와 다른 학자의 발달 단계를 연령대로 교차 연결하지 못하면 ㄷ까지 맞다고 보기 쉽다. 특히 '규칙'이라는 단어 때문에 콜버그의 도덕성도 유아기 특징처럼 느껴지지만, 사회적 규칙을 내면화한 도덕 판단은 전조작기보다 뒤의 수준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이 유형은 이론 내용을 따로 외우기보다 각 이론의 대표 연령대를 먼저 맞춰 보면 빠르게 풀린다. 전조작기와 겹치는 시기를 찾고, 사회규범이나 법질서처럼 더 성숙한 도덕 판단을 요구하는 진술은 제외하는 방식으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전조작기 = 에릭슨 주도성 대 죄책감 + 프로이트 남근기, 콜버그의 사회규칙 도덕성은 더 이후 단계이다.

NoteBase

문 11. 상관연구법(correlational method)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상관연구법은 두 변인 사이의 관계의 정도를 알아보는 데 사용된다.

② 심리학자 A는 상관을 연구할 때 상관계수를 산출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③ 상관계수는 완벽한 상관을 의미하는 $r = 1$에서 관계없음을 의미하는 $r = -1$까지의 범위를 가진다.

④ 두 변인 사이에 높은 상관이 있다는 것이 한 변인이 다른 변인의 원인이 된다는 것은 아니다.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상관연구법의 목적, 상관계수의 범위, 무상관과 완전한 부적 상관의 차이를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상관연구법은 변인을 직접 조작하지 않고 두 변인이 함께 변하는 방향과 정도를 파악하는 연구법이다.
상관계수는 두 변인의 관련성을 수치로 나타낸 값으로 $r = -1$부터 $r = 1$까지이다.
관계없음은 $r = 0$이고, $r = -1$은 완전한 부적 상관이다.

선지별 해설

① O
상관연구법은 두 변인 사이에 관련이 있는지, 있다면 그 관련성이 얼마나 강한지를 알아보는 데 쓰인다. 선지의 '관계의 정도'라는 표현은 상관의 강도를 묻는 핵심 기능과 맞는다.

② O
상관을 연구할 때는 상관계수 r를 산출해 두 변인의 관련성 방향과 강도를 판단할 수 있다. 상관연구법의 대표적 분석 지표가 상관계수이므로 옳다.

③ X
틀린 부분은 '관계없음을 의미하는 $r = -1$'이다. 올바르게는 관계없음은 $r = 0$이고, $r = -1$은 완전한 부적 상관을 뜻한다. 따라서 상관계수의 범위를 설명하면서 무상관의 값을 잘못 대응시킨 선지이다.

④ O
상관이 높다는 사실만으로 한 변인이 다른 변인의 원인이라고 결론낼 수는 없다. 상관연구는 관련성은 보여주지만 인과관계는 확정하지 못하므로 옳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③은 상관계수의 범위 자체는 맞게 제시하면서 '무상관'의 값을 슬쩍 $r=-1$로 바꿔 놓은 함정이다. 수험생이 r의 끝값만 외우고 각 값의 의미를 정확히 구분하지 않으면 쉽게 속을 수 있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상관 문제는 먼저 $r=1$, $r=0$, $r=-1$의 의미를 각각 대응시켜 본다. 그다음 상관은 관련성, 인과는 원인-결과라는 점을 분리해 판단하면 된다.

암기 포인트

$r=1$ 완전한 정적 상관, $r=0$ 무상관, $r=-1$ 완전한 부적 상관이다. 상관은 인과가 아니다.

NoteBase

문 12. 목이 마른 사람이 물을 마시려는 욕구가 생기는 것처럼, 동기는 안정적인 내적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발생하는 것이라고 강조하는 이론은?

① 추동감소이론(drive-reduction theory)
② 자기결정이론(self-determination theory)
③ 욕구위계이론(need hierarchy theory)
④ 성취동기이론(achievement motivation theory)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생리적 결핍이 긴장을 만들고 행동이 그 긴장을 줄여 항상성을 회복한다는 추동감소이론의 핵심을 이론명과 연결하는 문제이다.

핵심 정리

추동감소이론: 생리적 결핍이 추동을 만들고, 행동은 그 추동을 줄여 안정된 내적 상태를 회복하게 된다.
자기결정이론: 자율성, 유능성, 관계성의 충족이 내재동기와 자기결정을 높인다고 본다.
욕구위계이론: 인간의 욕구가 생리적 욕구에서 자아실현 욕구까지 위계적으로 배열된다고 본다.
성취동기이론: 성공 추구와 실패 회피의 성향이 과제 선택과 수행 수준을 좌우한다고 본다.

선지별 해설

① O: 목이 마른 상태는 생리적 결핍으로 인한 긴장 상태이고, 물을 마시려는 행동은 그 긴장을 줄여 항상성을 회복하려는 반응이므로 추동감소이론에 해당한다.
② X: 틀린 부분은 '안정적인 내적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발생하는 동기'를 자기결정이론과 연결한 점이다. 자기결정이론은 항상성 회복보다 자율성, 유능성, 관계성 충족에 따른 내재동기를 설명하는 이론이다.
③ X: 틀린 부분은 항상성 유지 설명을 욕구위계이론과 연결한 점이다. 욕구위계이론은 욕구의 강도와 발현 순서를 위계적으로 설명하는 이론이며, 올바르게는 생리적 욕구가 충족된 뒤 더 상위 욕구로 이동한다고 본다.
④ X: 틀린 부분은 생리적 결핍 해소를 성취동기이론과 연결한 점이다. 성취동기이론은 성취 상황에서 성공을 추구하거나 실패를 회피하려는 동기를 설명하며, 올바르게는 과제 난이도 선택과 수행 동기를 다루는 이론이다.

오답 포인트

'욕구'라는 단어 때문에 ③ 욕구위계이론으로 흔들리기 쉽지만, 제시문 핵심은 욕구의 종류나 순서가 아니라 '안정적인 내적 상태 유지'와 '긴장 감소'이다. 항상성, 결핍, 긴장 감소가 보이면 추동감소이론으로 연결된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생리적 결핍이 행동을 일으키고 그 행동이 긴장을 줄여 균형을 회복한다는 구조가 보이면 추동감소이론으로 판단한다. 자율성·유능성·관계성은 자기결정이론, 욕구의 단계 배열은 욕구위계이론, 성공 추구와 실패 회피는 성취동기이론으로 구분된다.

암기 포인트

추동감소이론 = 결핍 발생 -> 추동 형성 -> 행동 -> 긴장 감소 -> 항상성 회복이다.

NoteBase

문 13. (가), (나)에 들어갈 개념이 바르게 연결된 것은?

K는 어느날 빨간색 바지를 입고 카지노에 들렀다가 잭팟을 터뜨렸다. 옷차림과 도박결과는 서로 관련이 없지만 (가)로/으로 인해 K는 카지노에 갈 때마다 빨간색 바지를 입었다. 이러한 K의 행동은 (나)으로 해석할 수 있다.

① (가): 우발적 강화, (나): 미신행동
② (가): 우발적 강화, (나): 확증편향
③ (가): 조성, (나): 확증편향
④ (가): 조성, (나): 미신행동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우연한 보상이 특정 행동을 반복하게 만드는 우발적 강화와, 그렇게 형성된 비합리적 반복행동인 미신행동을 사례에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사례 정리

K는 빨간색 바지를 입고 카지노에 갔다가 잭팟을 터뜨렸다.
옷차림과 도박 결과는 실제로 서로 관련이 없다.
그런데도 K는 카지노에 갈 때마다 빨간색 바지를 반복해서 입었다.

핵심 개념

우발적 강화는 어떤 행동과 결과가 실제 인과관계가 없는데도 우연히 보상이 뒤따라 그 행동이 반복되는 현상이다.
미신행동은 우발적 강화로 인해 인과관계가 없는 행동을 효과 있는 행동처럼 반복하는 행동이다.

적용 기준

이 사례의 핵심 단서는 '옷차림과 도박결과는 서로 관련이 없지만'이라는 문장이다. 실제 관련이 없는 행동이 우연한 보상 뒤에 반복되므로 원인은 우발적 강화이고, 그 결과 나타난 반복행동은 미신행동으로 해석된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가)는 우연한 잭팟 경험이 빨간색 바지 착용을 반복하게 만들었으므로 우발적 강화가 맞다. (나)는 실제 인과관계가 없는데도 특정 복장을 반복하는 행동이므로 미신행동이 맞다.

② X
(가) 우발적 강화는 맞지만 (나) 확증편향이 틀리다. 확증편향은 자신의 믿음을 지지하는 정보만 선택적으로 받아들이는 인지적 편향이다. 이 사례의 핵심은 정보 해석의 편향보다 우연한 보상 뒤에 형성된 의식적 반복행동이므로, '(나) 확증편향'은 '(나) 미신행동'으로 고쳐야 한다.

③ X
'(가) 조성'이 틀리다. 조성은 목표행동에 가까운 반응을 단계적으로 강화하여 행동을 만들어 가는 절차인데, 이 사례에는 누군가가 계획적으로 단계 강화를 한 과정이 없다. 따라서 '(가) 조성'은 '(가) 우발적 강화'로 고쳐야 한다. 또한 '(나) 확증편향'도 사례 설명으로는 부적절하며 '(나) 미신행동'이 맞다.

④ X
(나) 미신행동은 맞는 방향이지만 '(가) 조성'이 틀려서 전체 선택지는 오답이다. 이 사례는 행동이 점진적으로 형성된 것이 아니라 우연한 보상 때문에 바로 반복되기 시작한 것이므로 '(가) 조성'은 '(가) 우발적 강화'로 고쳐야 한다.

오답 포인트

조성과 우발적 강화를 모두 '강화'와 연결해 비슷하게 보는 함정이 있다. 조성은 의도된 단계적 강화 절차이고, 우발적 강화는 인과관계 없는 행동이 우연한 보상으로 반복되는 현상이라는 점이 다르다. 또 확증편향은 생각의 해석 방식이고, 미신행동은 실제로 반복되는 행동이라는 점을 구분해야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사례형 문제에서는 먼저 행동과 결과 사이에 실제 인과관계가 있는지 본다. 인과관계가 없는데 우연한 보상 뒤에 행동이 반복되면 우발적 강화를 떠올리고, 그 반복된 의식적 행동은 미신행동으로 연결하면 된다.

암기 포인트

우연한 보상이 행동을 붙잡으면 우발적 강화이고, 그 결과 굳어진 비합리적 반복행동이 미신행동이다.

NoteBase

문 14. 다음 행동을 설명하는 개념은?

생후 3개월이 된 A는 물건이 눈앞에서 사라져 보이지 않으면 마치 그 물건이 없는 것처럼 행동한다. 그러나 생후 24개월이 된 B는 눈앞에서 사라진 물건을 찾는 모습을 보인다.

① 자기중심성
② 보존개념
③ 대상영속성
④ 마음이론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영아가 보이지 않는 물체도 계속 존재한다고 이해하는 대상영속성 개념을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자기중심성은 다른 사람의 관점을 자신의 관점과 분리하지 못하는 성향이다. 키워드는 관점 전환의 어려움이다.
보존개념은 모양이 바뀌어도 수량이나 양이 같다고 이해하는 개념이다. 키워드는 형태 변화와 양의 불변이다.
대상영속성은 눈앞에서 사라진 물체도 계속 존재한다고 이해하는 개념이다. 키워드는 보이지 않아도 존재함이다.
마음이론은 타인에게 자신과 다른 믿음, 의도, 감정이 있음을 이해하는 능력이다. 키워드는 타인의 마음 추론이다.

선지별 해설

① X: 자기중심성은 타인의 시각이나 입장을 함께 고려하지 못하는 특징을 말한다. 제시문은 타인의 관점이 아니라 숨겨진 물체의 지속적 존재를 이해하는지 여부를 설명한다. 틀린 표현은 개념 범주이다. 올바르게는 대상영속성이다.
② X: 보존개념은 액체의 모양이나 구슬 배열이 달라져도 양은 같다고 판단하는 능력이다. 제시문은 양의 보존이 아니라 사라진 물체를 찾는 행동을 다룬다. 틀린 표현은 양의 불변이다. 올바르게는 보이지 않는 물체의 존재 지속을 이해하는 대상영속성이다.
③ O: 대상영속성은 물체가 시야에서 사라져도 계속 존재한다고 이해하는 개념이다. 생후 24개월의 아동이 숨겨진 물건을 찾는 모습은 대상영속성이 형성되었음을 보여 준다.
④ X: 마음이론은 타인의 믿음이나 의도를 추론하는 능력이다. 제시문에는 타인의 마음상태를 추론하는 장면이 없고, 물체의 존재 지속을 이해하는 발달이 제시된다. 틀린 표현은 타인의 마음 이해이다. 올바르게는 대상영속성이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보기들이 모두 피아제의 인지발달 관련 용어라서 같은 발달 개념으로 뭉뚱그려지기 쉽다. 특히 ② 보존개념과 ③ 대상영속성은 둘 다 사물이 겉으로 달라져도 어떤 속성이 유지된다는 느낌을 주어 혼동되지만, 보존개념은 양의 불변이고 대상영속성은 존재의 지속이라는 점이 다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문장에 숨겨진 물건을 찾는지, 보이지 않아도 있다고 여기는지가 나오면 대상영속성을 먼저 떠올리면 된다. 양이 그대로인지 묻으면 보존개념이고, 타인의 생각을 추론하면 마음이론이며, 자기 관점에만 머무르면 자기중심성이다.

암기 포인트

대상영속성은 안 보여도 존재함이고, 보존개념은 모양이 바뀌어도 양은 같음이다.

NoteBase

문 15. 다음 설명하는 타당도는?

새로 개발한 성격 검사 도구의 타당도를 평가하기 위해서 이미 타당도가 입증된 유사한 검사결과와의 상관을 확인한다.

① 내용타당도(content validity)
② 공존타당도(concurrent validity)
③ 예언타당도(predictive validity)
④ 안면타당도(face validity)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이 문항은 내용타당도, 공준타당도, 예언타당도, 안면타당도의 정의 차이를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내용타당도는 검사의 문항이 측정하려는 내용 영역을 충분히 대표하는지를 보는 타당도이다.
공준타당도는 새 검사가 이미 타당성이 확인된 외적 준거와 얼마나 잘 일치하는지를 보는 타당도이며,
제시문처럼 기존의 유사한 타당화 검사와의 상관을 같은 시점에서 확인하는 경우가 해당한다.
예언타당도는 현재의 검사점수가 미래의 수행이나 행동을 얼마나 잘 예측하는지를 보는 타당도이다.
안면타당도는 검사가 겉보기에도 그 특성을 측정하는 것처럼 보이는지를 보는 타당도이다.

선지별 해설

① X: 내용타당도는 문항 내용이 성격 특성의 내용 영역을 고르게 대표하는지를 보는 것이다. 틀린 표현은 '이미 타당도가 입증된 유사한 검사결과와의 상관'이다. 올바르게는 '문항 내용이 측정 개념을 충분히 포괄하는지'를 검토해야 한다.
② O: 공준타당도는 외적 준거와의 관련성을 통해 새 검사의 타당도를 확인하는 것이다. 제시문은 이미 타당성이 확보된 유사한 검사와의 상관을 확인하므로 공준타당도, 그중에서도 공존타당도의 설명에 해당한다.
③ X: 예언타당도는 현재 검사점수로 미래의 행동이나 성과를 예측하는 타당도이다. 틀린 표현은 '이미 타당도가 입증된 유사한 검사결과와의 상관'이다. 올바르게는 '향후 직무수행, 학업성취 같은 미래 준거를 얼마나 잘 예측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④ X: 안면타당도는 수검자나 일반인이 보기에 그럴듯해 보이는 정도를 뜻한다. 틀린 표현은 '상관을 확인한다'는 부분이다. 올바르게는 '겉보기에 성격을 측정하는 검사처럼 보이는지'를 판단하는 수준이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공준타당도와 예언타당도는 모두 준거와의 관련성을 본다는 점 때문에 자주 섞인다. 이 문항의 함정은 '이미 타당도가 입증된 유사한 검사'와 '상관'이라는 현재 시점 단서를 놓치게 만드는 데 있다. 미래 예측이 나오면 예언타당도이고, 현재의 기존 검사와 비교하면 공준타당도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문항에 '기존에 검증된 검사와 비교', '동시에 측정', '상관을 확인'이 나오면 공준타당도로 판단한다. '미래 성과를 예측'이 나오면 예언타당도, '문항이 내용을 잘 대표'하면 내용타당도, '겉보기에 타당해 보임'이면 안면타당도로 구분된다.

암기 포인트

공준은 현재 준거와의 일치, 예언은 미래 준거의 예측, 내용은 문항 대표성, 안면은 겉보기 타당성이다.

NoteBase

문 16. 다음 (가)에 들어갈 뇌의 영역은?

1848년 9월 13일, 미국의 버몬트에서는 철길을 놓는 작업을 하고 있었다. 바위를 부수기 위해 화약 작업을 하는 중, 뜻하지 않은 폭발로 약 1m 길이의 쇠막대가 피니어스 게이지(Phineas Gage) 머리의 (가)을 관통하였다. 그는 의식을 잃고 병원으로 옮겨져서 쇠막대 제거 수술을 받았다. 쇠막대는 잘 제거되었고, 몇 주 후 게이지는 기억 및 신체적 문제없이 회복한 듯 보였다. 하지만 게이지는 성격의 변화가 나타났다. 그는 사고 전에는 침착하고 친절하며 순한 사람이었는데, 사고 후에는 책임감도 없어지고 충동적이며 무계획적으로 바뀌었다. 이후 연구자들의 발견에 따르면, (가)은 의사결정, 감정조절, 자기통제 등과 관련되어 있다고 알려졌다.

① 전두엽
② 두정엽
③ 측두엽
④ 후두엽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피니어스 게이지 사례를 통해 전두엽, 특히 전전두영역이 의사결정, 감정조절, 충동억제, 성격과 사회적 행동을 담당한다는 점을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전두엽은 실행기능과 자기통제를 담당하는 영역으로 의사결정, 계획, 충동조절, 사회적 판단과 밀접하다.
두정엽은 몸감각과 공간지각을 통합하는 영역이다.
측두엽은 청각 처리, 언어 이해, 기억과 관련이 깊다.
후두엽은 시각 정보를 처리하는 영역이다.

선지별 해설

① O: 게이지는 사고 후 책임감 저하, 충동성 증가, 무계획성 같은 성격 변화가 두드러졌는데, 이는 전두엽 특히 전전두영역 손상에서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변화이다.
② X: 틀린 부분은 "두정엽"이다. 두정엽은 체성감각 통합과 공간지각이 핵심 기능이므로, 사례의 핵심인 의사결정 저하와 감정조절 문제를 직접 설명하는 부위가 아니다. 올바르게는 전두엽이다.
③ X: 틀린 부분은 "측두엽"이다. 측두엽은 청각, 언어 이해, 기억과 더 관련이 크며, 사례처럼 성격 변화와 충동성 증가를 대표적으로 설명하는 부위는 아니다. 올바르게는 전두엽이다.
④ X: 틀린 부분은 "후두엽"이다. 후두엽은 시각 처리의 중심 영역이므로, 본문에 제시된 자기통제와 사회적 행동 변화의 핵심 부위와 맞지 않는다. 올바르게는 전두엽이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기억이 비교적 회복되었다는 대목만 보고 측두엽을 떠올리거나, 뇌엽 이름만 기계적으로 외워 두정엽과 전두엽 기능을 섞는 경우가 많다. 이 문항의 핵심 단서는 "의사결정, 감정조절, 자기통제, 성격 변화"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뇌 영역 문제는 증상의 기능어를 먼저 본다. 성격 변화, 충동성, 계획 실패, 사회적 판단 저하가 나오면 전두엽을 우선 판단하고, 감각·공간이면 두정엽, 청각·기억이면 측두엽, 시각이면 후두엽으로 구분한다.

암기 포인트

전두엽은 사람을 멈추고 계획하게 하는 영역이고, 후두엽은 본 것을 처리하며, 측두엽은 듣고 기억하고, 두정엽은 느끼고 위치를 잡는다.

NoteBase

문 17. A의 행동을 설명하는 개념은?

A는 학교에서 개인과제를 할 때보다 팀과제를 할 때 시간과 노력을 훨씬 덜 기울이는 경향이 있다. 팀과제의 경우 내가 열심히 했다고 나만 칭찬받거나 내가 좀 못했다고 비난을 받지도 않기 때문이다.

① 집단 극화(group polarization)
② 몰개인화(deindividuation)
③ 사회적 촉진(social facilitation)
④ 사회적 태만(social loafing)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집단 과제에서 개인의 기여가 분산되고 개별 평가가 약할 때 노력이 감소하는 사회적 태만을 다른 집단 현상과 구별하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사회적 태만은 집단 속에서 개인의 공헌이 잘 드러나지 않을 때 책임감과 평가 압력이 약해져 노력 수준이 떨어지는 현상이다.
집단 극화는 집단 토론 뒤 기존 태도나 판단이 더 극단으로 이동하는 현상이다.
몰개인화는 집단 속 익명성 때문에 자기인식과 자기통제가 약해지는 현상이다.
사회적 촉진은 타인의 존재가 각성을 높여 쉬운 과제 수행은 돕고 어려운 과제 수행은 방해할 수 있는 현상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집단 극화는 토론 후 의견이 더 극단화되는 현상이다. 제시문은 의견의 방향 변화가 아니라 팀과제에서 노력 자체가 줄어드는 현상을 말한다.
틀린 표현은 'A의 행동'을 집단 극화로 보는 부분이다. 올바르게는 '집단 토론 뒤 더 극단적 판단을 하는 경우'가 집단 극화이다.

② X
몰개인화는 익명성으로 자기통제가 약해져 충동적이거나 규범에서 이탈한 행동이 쉬워지는 현상이다. 제시문은 익명성 때문에 충동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별 공헌이 드러나지 않아 노력을 덜 기울이는 상황이다.
틀린 표현은 '칭찬받거나 비난받지 않기 때문에 노력을 덜 기울인다'를 몰개인화로 보는 부분이다. 올바르게는 '익명성 때문에 자기의식이 약해진다'가 몰개인화이다.

③ X
사회적 촉진은 다른 사람의 존재가 수행을 변화시키는 현상으로, 단순하거나 익숙한 과제에서는 수행이 좋아지고 어려운 과제에서는 수행이 나빠질 수 있다. 제시문은 타인의 존재로 수행 수준이 변한 것이 아니라 집단 과제에서 무임승차 심리가 생겨 노력량이 감소한 경우이다.
틀린 표현은 '팀과제에서 시간과 노력을 덜 기울인다'를 사회적 촉진으로 보는 부분이다. 올바르게는 '타인의 존재로 각성이 높아져 수행이 달라진다'가 사회적 촉진이다.

④ O
사회적 태만은 집단 과제에서 개인의 기여가 분명히 평가되지 않을수록 노력을 덜 들이는 경향이다. 제시문에서 A는 팀과제에서는 자신만 따로 칭찬이나 비난을 받지 않는다고 느끼기 때문에 개인과제보다 시간과 노력을 덜 기울이므로 사회적 태만에 해당한다.

오답 포인트

학생들이 '다른 사람과 함께 있을 때 행동이 달라진다'는 점만 보고 사회적 촉진으로 오인하기 쉽다. 그러나 이 문항의 핵심 단서는 '개인별 칭찬이나 비난이 없다'와 '노력을 덜 기울인다'이다. 이 단서는 각성 변화가 아니라 책임 분산과 평가 약화에 따른 사회적 태만을 가리킨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집단 상황 문항에서는 먼저 무엇이 변했는지를 본다. 의견이 더 극단화되면 집단 극화이고, 익명성으로 자기통제가 약해지면 몰개인화이며, 타인의 존재로 수행 수준이 달라지면 사회적 촉진이다. 개인 기여가 묻히고 평가가 흐려져 노력량이 줄면 사회적 태만이다.

NoteBase

암기 포인트

사회적 태만은 함께 할수록 책임이 퍼져 노력은 줄고, 사회적 촉진은 함께 있을수록 각성이 올라 수행이 달라진다.

NoteBase

문 18. 다음에서 설명하는 개념은?

◯ 인과성을 설명할 목적의 실험법에서 변인을 통제하는 방안이다.
◯ 실험의 효과가 독립변인 처치에 의한 것임을 확신할 수 있다.
◯ 제3의 변인이 실험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가정된다.
◯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간의 차이는 처치에만 기인한다.

① 실험목적에 대한 사후설명(debriefing)
② 평균으로의 회귀(regression to the mean)
③ 무선할당(random assignment)
④ 로젠탈 효과(Rosenthal effect)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무선할당의 의미와 그것이 실험집단-통제집단 차이를 어떻게 통제하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무선할당은 참여자를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에 무작위로 배정하여 제3변인이 두 집단에 평균적으로 고르게 퍼지게 만드는 절차이다.
사후설명은 실험 후 참여자에게 목적과 절차를 설명하는 연구윤리 절차이다.
평균으로의 회귀는 극단적 점수가 다음 측정에서 평균 쪽으로 돌아가는 현상이다.
로젠탈 효과는 연구자의 기대가 참여자나 결과에 영향을 주는 실험자 기대효과이다.

선지별 해설

1번 X: 사후설명은 실험이 끝난 뒤 참가자에게 실험의 진짜 목적과 기만 여부를 알려 주는 절차이다. 틀린 부분은 '변인을 통제하는 방안'이라는 연결이다. 실제로는 연구윤리와 참여자 보호를 위한 절차이다.
2번 X: 평균으로의 회귀는 극단값이 재검사에서 평균에 가까워지는 통계적 현상이다. 틀린 부분은 '독립변인 처치의 효과를 확신'한다는 연결이다. 실제로는 처치 효과와 무관하게 점수가 평균 쪽으로 움직일 수 있음을 뜻한다.
3번 O: 무선할당은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사전 차이를 우연적으로 분산시켜 제3변인이 특정 집단에 치우치지 않게 만든다. 그래서 집단 간 차이를 독립변인 처치의 효과로 해석할 수 있는 내적 타당도가 높아진다.
4번 X: 로젠탈 효과는 실험자의 기대가 참가자 행동이나 측정 결과에 영향을 주는 현상이다. 틀린 부분은 '집단 간 차이는 처치에만 기인한다'는 설명과의 연결이다. 실제로는 처치 외 기대효과가 집단 차이에 개입할 수 있음을 뜻한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보기의 설명은 모두 실험 장면과 관련된 용어처럼 보이지만, 핵심은 '집단 차이를 처치 효과로 돌릴 수 있게 만드는 배정 절차'인지 여부이다. 윤리 절차인 사후설명, 통계 현상인 평균으로의 회귀, 실험자 기대효과인 로젠탈 효과를 실험통제 절차와 섞어 놓은 점이 함정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설명 속에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차이는 처치 때문이라고 본다', '제3변인을 고르게 만든다', '무작위로 배정한다'가 나오면 무선할당을 먼저 떠올리게 된다. 반대로 실험 후 설명이면 사후설명, 극단값의 자연 복귀이면 평균으로의 회귀, 연구자 기대 개입이면 로젠탈 효과이다.

암기 포인트

무선할당은 집단을 섞어 제3변인을 고르게 하고, 로젠탈 효과는 연구자 기대가 결과를 흔든다.

NoteBase

문 19. 다음 사례에서 설명하는 개념은?

체육시간에 하는 '그룹 게임'은 모든 학생들이 가장 선호하는 활동이다. '그룹 게임' 활동을 하던 중에, A 학생이 B 학생과 다투었고, 결국 이 두 학생은 '그룹 게임'에서 제외되었다. 다음 체육시간부터는 A, B 학생을 포함하여 '그룹 게임'을 하는 중에는 학생들 간의 싸움이 줄어들었다.

① 정적 강화
② 부적 강화
③ 정적 처벌
④ 부적 처벌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행동의 결과가 제시될 때 정적·부적과 강화·처벌을 구분하여 사례에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사례 정리

학생들은 그룹 게임을 매우 선호한다.
A와 B가 다툰 뒤 두 학생은 그룹 게임에서 제외되었다.
그 결과 다음 체육시간부터 그룹 게임 중 학생들 간의 싸움이 줄어들었다.

핵심 개념

부적 처벌은 문제행동 뒤에 좋아하는 자극이나 활동을 제거하여 그 행동의 빈도를 감소시키는 절차이다.
정적·부적은 자극의 추가 여부를, 강화·처벌은 행동의 증가 여부를 뜻한다.

적용 기준

이 사례에서는 다툼이라는 문제행동 뒤에 학생들이 좋아하는 그룹 게임 참여 기회가 제거되었고, 이후 싸움이 감소하였다. 따라서 자극의 제거와 행동 감소가 함께 나타난 부적 처벌에 해당한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1번 X: 정적 강화는 바람직한 행동 뒤에 칭찬이나 보상처럼 선호 자극을 추가하여 행동을 늘리는 것이다. 이 사례는 자극을 더한 것이 아니라 좋아하는 활동을 빼앗았으므로 해당하지 않는다. 틀린 표현은 '정적 강화'이고, 올바르게는 '선호 활동을 제거하여 행동을 줄인 부적 처벌'이다.
2번 X: 부적 강화는 불쾌한 자극을 제거하여 바람직한 행동을 늘리는 것이다. 이 사례는 불쾌한 자극을 없앤 것이 아니라 선호 활동을 제거했고, 목표도 행동 증가가 아니라 싸움 감소이다. 틀린 표현은 '부적 강화'이고, 올바르게는 '선호 자극 제거에 따른 행동 감소'이다.
3번 X: 정적 처벌은 문제행동 뒤에 꾸중, 벌점처럼 불쾌한 자극을 추가하여 행동을 줄이는 것이다. 이 사례의 결과는 행동 감소라는 점에서는 비슷하지만, 핵심은 무엇을 더했는지가 아니라 좋아하는 게임 참여를 제거했다는 점이다. 틀린 표현은 '정적 처벌'이고, 올바르게는 '불쾌 자극 추가가 아니라 선호 활동 제거'이다.
4번 O: 부적 처벌은 문제행동 뒤에 선호 자극이나 활동을 제거하여 그 행동을 줄이는 것이다. 학생들이 좋아하는 그룹 게임에서 제외되었고 이후 싸움이 줄었으므로 정의와 정확히 일치한다.

오답 포인트

강화와 처벌만 보고 판단하거나, 정적을 '좋은 것', 부적을 '나쁜 것'으로 외우면 틀리기 쉽다. 이 문항의 함정은 '그룹 게임에서 제외'라는 표현을 벌주기 상황으로만 보고 3번 정적 처벌로 가는 데 있다. 실제 기준은 자극을 더했는지 뺐는지와 그 결과 행동이 늘었는지 줄었는지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사례형 행동수정 문항은 먼저 행동 뒤에 무엇이 추가되었는지 제거되었는지를 본다. 그다음 그 결과 행동 빈도가 증가했는지 감소했는지를 연결하면 정적·부적과 강화·처벌이 바로 구분된다.

암기 포인트

빼서 줄이면 부적 처벌, 더해서 줄이면 정적 처벌, 빼서 늘리면 부적 강화, 더해서 늘리면 정적 강화이다.

NoteBase

문 20. (가) ~ (라)에 들어갈 내용이 바르게 연결된 것은?

◯ 네온 사인의 불빛이 흐르듯 움직이는 것으로 지각하는 것은 (가)의 사례이다.
◯ 친구의 외모가 급격히 바뀌었더라도 친구를 알아보는 것은 (나)에 해당한다.
◯ (다)는 대뇌피질로 직접 연결되는 유일한 감각이며, 이를 제외한 다른 감각들은 먼저 시상으로 연결된다.
◯ 50 g 물건을 든 다음, 100 g 물건을 들면 50 g의 차이를 쉽게 알지만, 10 kg 물건을 든 다음, 10.05 kg 물건을 들면 50 g의 차이를 느끼지 못하는 것은 (라)의 사례이다.

① (가) 가현운동, (나) 지각 항상성, (다) 후각, (라) 베버의 법칙(Weber's law)
② (가) 폭포착시, (나) 감각순응, (다) 후각, (라) 신호탐지이론(signal detection theory)
③ (가) 가현운동, (나) 감각순응, (다) 통각, (라) 베버의 법칙(Weber's law)
④ (가) 폭포착시, (나) 지각 항상성, (다) 통각, (라) 신호탐지이론(signal detection theory)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가현운동, 지각 항상성, 후각, 베버의 법칙을 사례와 연결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가현운동은 정지된 자극이 빠르게 이어 제시될 때 실제로 움직이는 것처럼 지각되는 현상이다. 지각 항상성은 대상의 거리, 조명, 각도, 외형 변화가 있어도 같은 대상으로 안정되게 지각하는 성질이다. 후각은 다른 감각과 달리 시상을 먼저 거치지 않고 대뇌피질과 연결되는 감각이다. 베버의 법칙은 변별역이 절대 차이가 아니라 기존 자극 강도에 대한 비율에 따라 결정된다는 원리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이다. 네온사인 불빛이 흐르듯 움직여 보이는 것은 정지된 빛 배열을 운동으로 지각하는 가현운동이다. 친구의 외모가 달라져도 같은 사람으로 알아보는 것은 지각 항상성이다. 후각은 시상을 먼저 거치지 않는 감각이고, 무게 차이의 감지가 기준 자극의 크기에 따라 달라지는 것은 베버의 법칙에 해당한다.
② X이다. 틀린 부분은 (가)의 '폭포착시', (나)의 '감각순응', (라)의 '신호탐지이론'이다. 네온사인 사례는 폭포를 본 뒤 정지 장면이 반대로 움직여 보이는 폭포착시가 아니라 가현운동이다. 친구를 알아보는 것은 반복 자극에 둔감해지는 감각순응이 아니라 지각 항상성이다. 50g 차이를 작은 무게에서는 느끼고 큰 무게에서는 못 느끼는 것은 탐지 기준의 문제가 아니라 베버의 법칙이다.
③ X이다. 틀린 부분은 (나)의 '감각순응'과 (다)의 '통각'이다. 친구를 알아보는 현상은 감각순응이 아니라 지각 항상성이다. 대뇌피질로 직접 연결되는 유일한 감각은 통각이 아니라 후각이다.
④ X이다. 틀린 부분은 (가)의 '폭포착시', (다)의 '통각', (라)의 '신호탐지이론'이다. 네온사인 사례는 폭포착시가 아니라 가현운동이다. 직접 연결되는 감각은 통각이 아니라 후각이다. 무게 차이의 상대적 변별은 신호탐지이론이 아니라 베버의 법칙으로 설명된다.

오답 포인트

운동지각 관련 용어인 가현운동과 폭포착시를 한 묶음으로 외우면 (가)에서 흔들리기 쉽다. 또 친구를 알아보는 현상을 감각기관의 민감도 저하인 감각순응과 혼동하거나, 변별역 문제를 신호탐지이론과 섞으면 (나), (라)에서 오답이 나오기 쉽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사례를 보면 먼저 현상의 핵심을 한 단어로 바꿔 본다. 정지 자극의 운동 지각이면 가현운동, 대상 동일성 유지이면 지각 항상성, 시상 예외 감각이면 후각, 절대 차이가 아니라 비율 문제이면 베버의 법칙으로 판단된다.

암기 포인트

가현운동은 정지가 움직임처럼 보이는 현상이고, 지각 항상성은 변해도 같은 것으로 보는 성질이며, 후각은 시상 예외이고, 베버의 법칙은 차이의 비율 법칙이다.

NoteBase

문 21. 기억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망각은 학습 직후 가장 빠르게 발생하고, 시간이 흐름에 따라 망각속도가 느려진다.
ㄴ. 순행간섭은 새로운 학습이 기존정보의 회상을 방해할 때 일어난다.
ㄷ. 최신효과(recency effect)는 단어목록 회상실험에서, 목록의 앞쪽 항목에 대해 회상률이 높은 것을 말한다.
ㄹ. 계열위치효과는 단기기억과 장기기억이 서로 구분되어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ㄷ, ㄹ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망각곡선, 순행간섭과 역행간섭, 초두효과와 최신효과, 계열위치효과의 기억체계 해석을 정확히 구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망각곡선은 학습 직후 망각이 가장 빠르고 이후에는 점차 완만해지는 기억 감소 패턴이다.
순행간섭은 이전 학습이 새로운 학습을 방해하는 현상이고, 역행간섭은 새로운 학습이 기존 정보의 회상을 방해하는 현상이다.
계열위치효과는 목록의 앞부분이 잘 기억되는 초두효과와 끝부분이 잘 기억되는 최신효과를 함께 말하며, 이는 장기기억과 단기기억의 구분을 시사한다.

선지별 해설

① X: ①은 ㄱ, ㄴ의 조합이다. ㄱ은 에빙하우스의 망각곡선 설명과 일치하므로 옳다. 그러나 ㄴ은 새로운 학습이 기존 정보의 회상을 방해한다고 했으므로 역행간섭 설명이다. 틀린 표현은 '순행간섭'이고, 올바르게는 '역행간섭'이다.
② O: ②는 ㄱ, ㄹ의 조합이다. ㄱ은 학습 직후 망각이 가장 빠르다는 점에서 옳다. ㄹ도 초두효과는 장기기억, 최신효과는 단기기억과 관련되어 계열위치효과가 두 기억체계의 구분을 뒷받침한다는 점에서 옳다.
③ X: ③은 ㄴ, ㄷ의 조합이다. ㄴ은 역행간섭을 순행간섭으로 잘못 썼으므로 틀리다. ㄷ도 최신효과를 목록의 앞쪽 항목이라고 설명했는데, 최신효과는 목록의 끝쪽 항목 회상률이 높은 현상이다. 틀린 표현은 '목록의 앞쪽 항목'이고, 올바르게는 '목록의 끝쪽 항목'이다.
④ X: ④는 ㄷ, ㄹ의 조합이다. ㄹ은 옳지만 ㄷ이 틀리므로 전체 조합은 옳지 않다. ㄷ은 최신효과와 초두효과를 뒤바꾼 진술이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순행간섭과 역행간섭은 방해의 방향을 바꾸어 자주 출제되고, 최신효과와 초두효과도 앞과 뒤를 뒤집어 놓는 경우가 많다. 이 문항에서는 ㄴ의 '순행간섭'과 ㄷ의 '앞쪽 항목'이 함정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조합형 문항에서는 먼저 ㄱ~ㄹ을 하나씩 독립적으로 판단한 뒤 선택지 조합을 맞춘다. 간섭은 누가 누구를 방해하는지 방향을 보고, 계열위치효과는 앞이면 초두효과, 뒤면 최신효과로 구분하면 된다.

암기 포인트

망각은 처음이 가장 빠르고, 순행은 옛것이 새것을 방해하며, 역행은 새것이 옛것을 방해하고, 초두는 앞, 최신은 뒤이다.

NoteBase

문 22. 인간의 발달을 연구하는 방법 중 종단연구(longitudinal study)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코호트(cohort) 효과를 통제할 수 없다.
ㄴ. 특정 대상을 선정하여 시간 간격을 두고 반복하여 측정하는 것이다.
ㄷ. 시간과 비용이 많이 필요하다.
ㄹ. 시간이 지남에 따라 연구참여자의 탈락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

① ㄱ, ㄷ
② ㄴ, ㄹ
③ ㄱ, ㄴ, ㄷ
④ ㄴ, ㄷ, ㄹ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종단연구의 정의와 장단점, 특히 코호트 효과와 연구참여자 탈락 가능성을 구분하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종단연구는 동일한 대상자를 일정한 시간 간격을 두고 반복 측정하여 발달이나 변화를 추적하는 연구방법이다.
같은 코호트를 계속 추적하므로 횡단연구보다 코호트 효과를 줄이거나 통제하는 데 유리하고, 대신 장기간 관찰이 필요하여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며 연구참여자 탈락이 생기기 쉽다.
이 문항에서는 ㄴ, ㄷ, ㄹ이 옳고, ㄱ은 '통제할 수 없다'는 표현이 틀리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1번 X
- 1번은 ㄱ, ㄷ의 조합인데 ㄷ은 옳지만 ㄱ이 틀려서 오답이다.
- 틀린 부분은 ㄱ의 '코호트 효과를 통제할 수 없다'는 표현이다.
- 실제로는 종단연구는 동일 코호트를 장기간 추적하므로 횡단연구보다 코호트 효과를 줄이거나 통제하는 데 더 유리하다.

2번 X
- 2번은 ㄴ, ㄹ의 조합인데 두 진술은 모두 옳다.
- 그러나 옳은 진술 하나가 더 있으므로 정답 조합이 아니다.
- 빠진 옳은 진술은 ㄷ의 '시간과 비용이 많이 필요하다'이다.

3번 X
- 3번은 ㄱ, ㄴ, ㄷ의 조합인데 ㄴ과 ㄷ은 옳지만 ㄱ이 틀려서 오답이다.
- 틀린 부분은 ㄱ의 '통제할 수 없다'는 단정이다.
- 실제로는 종단연구는 동일한 집단을 반복 측정하므로 세대 차이에서 생기는 코호트 효과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덜 받는다.

4번 O
- 4번은 ㄴ, ㄷ, ㄹ의 조합으로 모두 옳다.
- ㄴ은 특정 대상을 선정하여 시간 간격을 두고 반복 측정한다는 종단연구의 정의에 해당한다.
- ㄷ은 장기간 추적이 필요하므로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든다는 한계를 말한다.
- ㄹ은 시간이 지날수록 연구참여자가 빠져나가는 탈락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는 한계를 말한다.

오답 포인트

종단연구의 대표적 약점인 시간·비용·탈락 문제는 잘 알려져 있어 ㄷ, ㄹ은 쉽게 고르지만, ㄱ의 코호트 효과를 횡단연구의 약점과 뒤섞으면 오답이 된다. 이 문항은 '종단연구도 코호트 효과를 통제할 수 없다'는 식의 과도한 단정을 함정으로 둔 문제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종단연구가 나오면 먼저 '같은 사람을 여러 시점에 반복 측정하는가'를 확인한다. 그다음 장점은 변화 추적과 코호트 효과 통제의 상대적 용이성으로, 단점은 시간·비용 부담과 탈락 가능성으로 연결하면 판단이 정리된다.

암기 포인트

종단연구는 같은 집단 반복 추적, 장점은 변화 추적과 코호트 효과 통제, 단점은 시간·비용·탈락이다.

NoteBase

문 23. 다음을 설명하는 심리치료 기법은?

A는 아이가 시도 때도 없이 손톱을 물어뜯는 모습을 보았다. 손톱 물어뜯기를 고치기 위해 아이가 잠든 사이 쓴맛이 나는 약을 손톱에 칠했다. 이후 아이가 손톱을 물어뜯는 횟수가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

① 노출치료 기법
② 혐오치료 기법
③ 체계적 둔감법
④ 홍수법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문제행동 뒤에 불쾌한 자극을 결합해 행동 빈도를 낮추는 기법이 무엇인지를 사례에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사례 정리

핵심 사실 1: 아이는 시도 때도 없이 손톱을 물어뜯는 습관을 보였다.
핵심 사실 2: 손톱 물어뜯기를 줄이기 위해 잠자는 사이 쓴맛이 나는 약을 손톱에 칠했다.
판단에 중요한 조건: 손톱 물어뜯기 행동과 불쾌한 맛을 연결한 뒤 그 행동의 빈도가 감소했다.

핵심 개념

혐오치료 기법은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에 불쾌한 자극을 결합하여 그 행동을 감소시키는 행동치료 기법이다.
적용 요건은 특정 행동 뒤에 혐오 자극이 연결되고, 그 결과 행동 빈도가 줄어드는 것이다.

적용 기준

이 사례에서는 손톱 물어뜯기라는 문제행동에 쓴맛이라는 혐오 자극을 붙여 행동을 줄였는지를 보면 된다.
핵심은 불안을 낮추기 위한 노출이 아니라 불쾌 자극을 통한 행동 억제라는 점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노출치료 기법은 두려움이나 불안을 일으키는 자극에 반복적으로 직면하게 하여 회피를 줄이는 방법이다. 이 사례는 공포 대상에 노출한 것이 아니라 손톱 물어뜯기 행동에 쓴맛을 연결했다. 틀린 표현은 '노출치료'이고, 올바르게는 불쾌 자극을 결합한 혐오치료이다.
② O: 손톱을 물어뜯을 때 쓴맛이라는 혐오 자극을 경험하게 하여 그 행동의 빈도를 감소시켰으므로 혐오치료 기법에 해당한다.
③ X: 체계적 둔감법은 불안 위계를 세우고 이완과 함께 약한 자극부터 점진적으로 노출하여 불안을 줄이는 방법이다. 이 사례에는 이완훈련도, 불안 위계도, 점진적 노출도 없다. 틀린 표현은 '체계적 둔감법'이고, 올바르게는 혐오 자극을 사용한 혐오치료이다.
④ X: 홍수법은 불안을 일으키는 자극에 강하게 장시간 노출하여 회피 반응을 줄이는 기법이다. 이 사례는 공포자극에 몰입 노출한 것이 아니라 손톱 물어뜯기 습관에 쓴맛을 붙여 억제했다. 틀린 표현은 '홍수법'이고, 올바르게는 혐오치료 기법이다.

오답 포인트

노출치료, 체계적 둔감법, 홍수법은 모두 자극에 '노출'한다는 공통점 때문에 헷갈리기 쉽다. 그러나 이 문항의 핵심 단서는 '쓴맛 나는 약'처럼 불쾌한 자극을 붙였다는 점이며, 이는 공포 감소가 아니라 문제행동 억제를 겨냥한 혐오치료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사례형 행동치료 문항은 먼저 무엇을 줄이려는지와 어떤 자극을 붙였는지를 분리해 판단한다. 문제행동 뒤에 불쾌 자극을 연결해 빈도를 낮추면 혐오치료이고, 불안 자극에 직면시켜 회피를 줄이면 노출계열 기법이다.

암기 포인트

혐오치료는 문제행동 + 불쾌 자극 + 행동감소의 조합으로 기억한다.

NoteBase

문 24. 자기개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로저스(Rogers)에 따르면, 자기개념은 현실적 자기(real self)와 이상적 자기(ideal self)라는 두 차원으로 나뉠 수 있다.

② 히긴스(Higgins)의 자기불일치 이론에 의하면, 자기의 영역은 실제적 자기(actual self), 이상적 자기(ideal self), 당위적 자기(ought self)로 나뉠 수 있다.

③ 스완(Swann)의 자기확증가설(self-verification hypothesis)에 의하면, 부정적 자기개념을 지닌 사람들은 낮은 자기 존중감을 보상하기 위해서 자신에 관한 긍정적 피드백을 더 적극적으로 추구한다.

④ 린빌(Linville)의 자기복잡성 가설(self-complexity hypothesis)에 의하면, 어떤 사람들은 자신에 대해서 생각할 때 단지 한두 개 차원에서만 생각하는 반면, 다른 사람들은 매우 다양한 차원상에서 자기를 이해하고 정의한다.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로저스, 히긴스, 스완, 린빌의 자기개념 관련 이론을 대표 키워드와 정확히 연결하는지를 묻는다.

핵심 정리

로저스: 현실적 자기와 이상적 자기의 관계를 통해 자기개념과 적응을 설명한다.
히긴스: 실제적 자기, 이상적 자기, 당위적 자기의 불일치가 정서적 불편을 낳는다고 본다.
스완: 사람은 자신이 이미 믿고 있는 자기상과 일치하는 피드백을 선호한다고 본다.
린빌: 자기복잡성은 자신을 이해하는 자기 측면의 수와 분화 정도를 뜻하며, 복잡성이 높을수록 충격이 분산될 수 있다.

선지별 해설

① O. 로저스는 자기개념을 현실적 자기와 이상적 자기의 차원에서 설명하며, 두 자기 사이의 불일치가 클수록 부적응이 커질 수 있다고 본다.
② O. 히긴스의 자기불일치 이론은 실제적 자기(actual self), 이상적 자기(ideal self), 당위적 자기(ought self)를 구분한다.
③ X. 틀린 표현은 '부정적 자기개념을 지닌 사람들이 낮은 자기 존중감을 보상하기 위해 자신에 관한 긍정적 피드백을 더 적극적으로 추구한다'는 부분이다. 스완의 자기확증가설은 사람이 긍정적인 평가 자체보다 기존 자기개념과 일치하는 평가를 선호한다고 본다. 올바르게는 부정적 자기개념을 지닌 사람도 자신에 대한 부정적 자기상을 확인해 주는 피드백을 선호할 수 있다.
④ O. 린빌의 자기복잡성 가설은 어떤 사람은 자신을 한두 차원으로 단순하게 이해하고, 어떤 사람은 여러 차원으로 다양하게 이해한다고 본다. 이는 자기 측면의 수와 분화 정도의 차이를 설명하는 진술이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스완의 자기확증가설을 자기고양 동기와 혼동하면 ③을 맞는 말로 착각하기 쉽다. 자기확증은 '좋게 평가받고 싶다'가 아니라 '내가 이미 믿는 자기상과 일치하게 확인받고 싶다'는 점이 핵심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자기개념 이론 문항은 학자 이름을 보면 대표 연결어를 먼저 떠올리면 된다. 로저스는 현실적 자기-이상적 자기, 히긴스는 actual-ideal-ought, 스완은 일치하는 피드백 추구, 린빌은 자기 측면의 수와 다양성으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로저스는 real self와 ideal self, 히긴스는 actual self와 ideal self와 ought self, 스완은 자기고양이 아니라 자기확증, 린빌은 자기복잡성이다.

NoteBase

문 25. 성격장애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편집성 성격장애(paranoid personality disorder)는 다른 사람의 동기를 의심하고 신뢰하지 않는다.
ㄴ. 경계선 성격장애(borderline personality disorder)는 인간관계가 불안정하고 극단적이며, 특히 충동적 자해행위를 한다.
ㄷ. 분열성 성격장애(schizoid personality disorder)는 사교 관계를 원하지도 즐기지도 못 하고 감정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ㄱ, ㄴ, ㄷ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편집성 성격장애, 경계선 성격장애, 분열성 성격장애의 핵심 특징을 정확히 구별하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편집성 성격장애는 타인의 의도와 동기를 악의적으로 해석하며 불신과 의심이 두드러지는 성격장애이다.
경계선 성격장애는 대인관계, 자아상, 정서가 불안정하고 충동성 및 자해 행동이 나타나기 쉬운 성격장애이다.
분열성 성격장애는 사회적 관계를 원하지도 즐기지도 않으며 정서 표현이 제한되어 냉담해 보이는 성격장애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ㄱ과 ㄴ은 모두 맞는 진술이지만, ㄷ도 옳은 진술인데 빠져 있어서 전체 조합이 틀리다. 올바르게는 ㄱ, ㄴ, ㄷ을 모두 고른 ④이다.

② X
ㄱ과 ㄷ은 맞는 진술이지만, ㄴ도 옳은 진술인데 빠져 있어서 전체 조합이 틀리다. 올바르게는 ㄱ, ㄴ, ㄷ을 모두 고른 ④이다.

③ X
ㄴ과 ㄷ은 맞는 진술이지만, ㄱ도 옳은 진술인데 빠져 있어서 전체 조합이 틀리다. 올바르게는 ㄱ, ㄴ, ㄷ을 모두 고른 ④이다.

④ O
ㄱ은 편집성 성격장애의 핵심인 타인에 대한 지속적 의심과 불신을 정확히 설명한다.
ㄴ은 경계선 성격장애의 핵심인 불안정한 대인관계, 극단적 정서, 충동적 자해 행동 가능성을 정확히 설명한다.
ㄷ은 분열성 성격장애의 핵심인 사회적 고립 선호와 제한된 정서 표현을 정확히 설명한다.

오답 포인트

편집성 성격장애의 불신, 경계선 성격장애의 충동성과 자해, 분열성 성격장애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각각 따로 외우지 않으면 부분적으로만 맞는 조합을 정답처럼 고르기 쉽다. 이 문항은 개별 진술의 진위를 묻는 듯 보이지만 실제 함정은 세 진술이 모두 옳다는 점에 있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성격장애 조합형 문항은 먼저 각 진술을 하나씩 O/X로 판정한 뒤 마지막에 조합을 고르면 된다. 편집성은 의심과 불신, 경계선은 불안정과 충동성, 분열성은 관계 회피와 정서적 냉담으로 판단하면 된다.

암기 포인트

편집성은 의심, 경계선은 불안정과 자해, 분열성은 관계 회피와 냉담이다.

NoteBase